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제 73 회 추계학술대회 보고

제 73 회 추계학술대회 실행위원장 쿠가 히로토(도시샤 대학교)

2025년 10월 4일(토)·5일(일) 이틀간, 일본사회복지학회 제73회 추계학술대회가 도시샤 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도시샤대학교에서는 1994년 이후로 약 30년 만에 본 학회 전국학술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문득 30년 전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교토를 찾는 관광객이 훨씬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먼 곳에서 참가하신 분들은 교토역에서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많음에 놀라셨을 것입니다. 각지의 관광 명소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혼잡한 풍경은 교토에서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게다가 당일은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폐막까지 약 10일밖에 남지 않은 시기였다는 점도 있어), 교토의 비싼 호텔 요금에도 놀라셨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근 현에서 숙박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일은 가랑비가 내리는 날씨였지만, 이틀 동안 약 780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현대 사회복지학의 사상적 기반 - 이론과 실천의 근원을 성찰하다-”였습니다. 세계를 보면 여전히 전쟁 소식이 이어지고, 국내에서도 빈곤과 고립, 배제와 분단을 둘러싼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학회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으로,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의 사상적 기반을 다시 돌아보고, 그 이론과 실천의 근원을 새롭게 성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본 대회를 이 시대 속 사회복지학과 학회의 방향을 전망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생각을 바탕으로 기조 강연과 심포지엄을 대회 주최 측 기획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초기경력 연구자 연구 교류회” “유학생 및 국제 비교연구를 위한 워크숍” “학회 기획 세션” “특정 과제 세션” 외에 구두 발표(약 150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와 포스터 발표(약 70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들을 비롯해 사회, 강사, 좌장을 맡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은 도시샤대학의 전신인 도시샤 영(英)학교가 니이지마 조에 의해 창립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또한 2005년 문학부 개편에 따른 사회학부 개설로, 기존 문학부 사회학과 사회복지학 전공에서 사회학부 사회복지학과로 변경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해에 본 학회의 전국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을, 대회 개최교 교직원 및 스태프 일동은 다시 한번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배움 많고, 오래 기억에 남을 전국 학술대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약 2년에 걸쳐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과 미흡한 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행위원장인 저의 역량 부족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73회 추계학술대회는 끝났지만, 이번 대회에서 내건 주제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 문제와 과제가 있는 가운데, 그리고 사

회복지학을 둘러싼 상황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저도 한 학회 회원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정진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 대회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앞으로의 활약을 기원합니다.

2025 년도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학회상 수상에 대해

학회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2025년도 학회상이 결정되어 학술상(단저 부문)으로 마키타 토시키 회원이, 장려상(단저 부문)으로 첸 성 회원이, 장려상(논문 부문)으로 이시지마 켄타로 회원 및 오카베 아카네 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제73회 추계학술대회 첫날인 2025년 10월 4일(토)에 도시샤 대학교 무료마치 캠퍼스 칸바이관 하디홀에서 개회식에 이어 진행되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사사오카 위원 · 와케 회장 · 노구치 위원 마키타 회원 이마이 위원 · 진 회원 · 야마가타 위원장 · 이시지마 회원 · 히라오카 위원 오카베 회원

◆ 학술상(단독저자 부문) 마키타 토시키(릿쿄 대학교)

수상작: 『「장애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묻다——"사실"에서
"유용성"에 기반한 장애 정의의 전략적·실천적 사용으로』

(생활서원, 2024년 5월 31일 간행)



이번에 이처럼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먼저, 본서를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도교수인 다나카 고이치로 교수님, 논문 심사를 해주신 교수님들, 본서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일반적으로 기초연구·이론연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학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도 기초연구·이론연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즉시 활용 가능한 연구가 요구되면서 기초연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된 데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연구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향후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불분명한 연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과 우연성 또한 연구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구·이론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학은 학제적 특성을 지닌 학문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속학·문화인류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이 참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회복지학의 대상이 반드시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의 지식을 참고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올바른 해석을 하고 있는지 불안이 따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찰을 심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지식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참고한 연구가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제적 기초연구를 높이 평가해 주신 본 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독자 분들께 더욱 흥미롭고 의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장려상(단독저자 부문) 첸 성(쇼케이 대학교 단기대학부)

수상작: 『당사자가 말하는 "빈곤이란 무엇인가"——참여형 빈곤
조사의 가능성』



(홋카이도대학교 출판, 2024년 10월 25일
간행)

이번에 일본사회복지학회 학회상(장려상·저서)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심사해 임해 주신 위원 선생님들, 그리고 평소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상 대상이 된 저서 『당사자가 말하는 「빈곤이란 무엇인가」——참여형 빈곤 조사의 가능성』은,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사 연구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저 개인의 연구 성과라기보다는 당사자 분들과의 협력의 결실이며, 오히려 저 자신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형 빈곤 조사라는 방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엮어가는 과정에서 빈곤의 다양한 측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발휘하는 힘과 역량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사자 분들이 때로는 의견 차이나 갈등을 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말로 ‘빈곤’을 이야기하고 분석해 주신 것이 이 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책이 빈곤 당사자를 ‘빈곤 개념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상은 조사에 참여해 주신 당사자 여러분과, 출판 및 연구 과정을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번 경험을 힘삼아 앞으로도 당사자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에 소외된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며 연구를 심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동료들과 함께, 보다 풍부한 사회복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장려상(논문 부문) 이시지마 겐타로(도쿄도리츠 대학교)

수상작: 「중증 방문간호 급여의 지역 간 격차는 누구에게·어디에서·왜 발생하는가? — ALS 환자의 장애 정도와 거주 지자체를 고려한 분석—」

(『사회복지학』 제65권 2호 게재, 2024년 8월 31일 간행)



이번에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ALS 환자에 대한 중증 방문간호 급여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해 그 발생 요인을 검토한 것입니다. 분석한 데이터는 환자 모임인 일본 ALS 협회 내부에 설치된 연구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회원인 환자·가족 여러분의 협력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협력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연구회 멤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증 방문간호 급여의 부족은 자립생활 현장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연구 질문으로 순수하게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학의 강점을 느끼게 해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회학과 장애학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상호작용과 그 배경에 존재하는 규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면 절제된 태도로 접근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장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생각이 흐르기 쉽습니다. 그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며, 또한 저 개인뿐만 아니라 장애학 전체에서도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학에서 제기되어 온 전문직 비판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사회복지학의 관점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보완해 본 경험은 향후 제 연구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증 방문간호 급여의 지역 간 격차를 둘러싼 향후 연구 전망으로는, 이번 논문에서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한 급여 결정 기준을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일일이 수집하는 작업이 첫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수집한 방대한 문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지는 적지않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기술의 활용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연구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늘 지지해 주신 대학교 동료 및 학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려상(논문 부문) 오카베 아카네(오오타니 대학교)

수상작: 「은둔형 외톨이 경험이 있는 청년의 시각에서 본 지원으로서 제공되는 공동생활의 영향—공동생활형 지원 이용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 분석—」
(『사회복지학』 제65권 2호 게재, 2024년 8월 31일 간행)



이번에 장려상에 선정되어,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조사에 참여하시며 여러 번거로움을 감수하시는 가운데 많은 깨달음을 주신 조사 협력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실천과 연구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제 미숙한 논문을 읽고 상세한 조언을 해 주신 심사자 분들과 심사에 힘써 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 청년층의 생존 수단과 빈곤 문제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공동생활형 지원 이용 경험자 중, 과거 자신의 상황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검토한 것입니다. 이 실천은 가족 부양이 강하게 요구되는 일본에서 다른 방식의 생활도 가능하다는 점을 당사자들의 실제 생활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생활공간을 꾸리는 실천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때에는 행정 기관에 의해 '지역 자원'으로서 편의적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반대로 수상하거나 위험한 시설, 혹은 빈곤 비즈니스라는 비판을 받으며 외면당하거나 무턱대고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실천은 청년을 착취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착한 시민으로 길들이는 시설이 될 수도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적 정비 부족을 면책하는 수단이 될 위험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를 동반하는 다른 복지 실천에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여러 활동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일상을 세심히 만들어 가는 실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의 장소 안에서,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대해, 인간으로서 건네는 응답, 혹은 그 응답을 향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본 것 같습니다. 연구란, 이러한 사람들의 삶과 저항이 지닌 풍부함을 조금이라도 언어화하고, 그것이 왜곡되거나 위험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곳곳에서 생존권이 터무니없이 가볍게 다뤄지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맞서기 위한 길을, 미약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복지학회는 자격 및 전문직 양성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이번 호에서는 위 주제로 다섯 분의 회원을 모시고 진행한 좌담회를 총 5 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번 좌담회는 해당 주제에 대해 학회 내 논의를 열어가는 것을 목표로, 자유로운 대화를 취지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회원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학회 내에서 논의를 심화해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호는 제 1 회, 제 2 회에서의 논의를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호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멤버와 당일 참여한 홍보원 멤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회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표자: 이시카와 토키코 회원(간토가쿠인 대학교), 구치무라 아즈시 회원(오카야마켄 리츠 대학교), 히시누마 미키오 회원(니혼샤카이지교 대학교), 미와 키요코 회원(메이지가쿠인 대학교), 와타나베 유이치 회원(무사시노 대학교)

사회·홍보위원회: 이와나가 리에(니혼조시 대학교), 아리무라 다이시(니혼샤카이지교 대학교), 임 세아(릿쿄 대학교), 오오사와 토모코(잇센조시 대학교), 카타야마 히로노부(홋카이도이료 대학교)

제 3 회: 사회복지사 신 교육과정이 대학·교육에 미친 영향 등

이시카와: 와타나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고 공감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대학들은 모두 학부 안에 사회학처럼 자격증 취득을 필수로 하지 않는 선택지가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지망하는 학생들만 과목 수가 많아지는 거죠. 원래는 졸업 학점을 여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만 실습을 나가야 하고, 실습 준비 수업도 매우 까다롭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졸업을 우선시하다 보니 자격증은 매우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나,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만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직업적 조건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취업 상황을 고려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학업이 버거운 학생들은 실습이나 실습 준비 수업에서 일지를 작성하는 게 힘들어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는, 어떻게 실습 준비 수업을 꾸준히 따라가고, 기록 작성을 하게 할지, 또 실습에 나갔을 때 기본적인 예절을 지킬 수 있을지 같은 부분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실습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 자신도 사회복지사가 필수가 아닌 대학을 오래 경험해 오면서, 자격증 양성 기관처럼 되어 버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계속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교양이나 사회학을 기반으로 한 학문의 즐거움을 중요하게 여겨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졸업 논문은 제쳐 둔 채 자격증 공부에만 몰두하는 분위기가 되어 버리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학문적 배움을 끝까지 마무리한 뒤 졸업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사회복지학을 기반으로 한 사람으로서, 또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원으로서의 입장을 어떻게 해 나갈지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성기관 교원 역할에 집중할지, 연구자나 교육자로서의 활동 비중을 어떻게 배분할 지에 대해, 처음 언급한 내용과 연결되지만, 대학이라는 구조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타나베: 이시카와 교수님의 발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이 마치 교육의 전부인 양 이야기되는 것 자체에 커다란 위화감이 있습니다. 무사시노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의 경우, 1 학년 정원 145 명 중 실습에 가는 인원은 110-120 명입니다. 이는 저희가 교육 과정에서 목표로 삼는 디플로마 정책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사회복지 전문직을 양성하는 교육 훈련이 100% 사회복지사 자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국가자격이지만, 이시카와 교수님이 말씀하신 교양이나 사회학 같은 학문적 기반은 사회복지의 토대이기 때문에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육이 빠져버리면 사회복지 전문직을 위한 교육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커리큘럼 내 지정과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교양을 말합니다. 대학교에서 그러한 폭넓은 배움이 가능하고, 비록 우리 학과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우리 대학이 가진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사시노 대학교는 항상 저희끼리 스스로 말하곤 하지만, 딱 알맞은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차치가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입학한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진 학력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힘과 가능성을 어떻게 전문직으로 길러낼 것인가 하는 점이 매우 큰 과제로서 늘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리버럴 아츠는 매우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사시노 대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졸업 논문을 작성합니다. 교원들도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앞으로 현장 실전을 해나가는 데 있어 근거 기반의 관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사회복지 현장 혹은 소셜워크 현장으로 보내는 데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금 전 말씀을 들으면서, 학교마다 양성 기관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시누마: 현재로서는 저희 대학은 전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졸업 논

문도 필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습을 마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결국 몇몇은 퇴학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휴학에서 퇴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수 과목을 제외할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학생들 제각각 다양한 어려움을 떠안으면서 복지 일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재는 실습 기관으로부터 많은 협조도 받고 있습니다. 전문직 양성이라고 해도 예전과는 달리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방금 전 이야기로 돌아가면, 리버럴 아츠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졸업 시 설문조사(다른 대학에서도 진행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학생들의 교양 과목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전문 과목에 대해서는 이해가 깊어졌다는 결과가 나오지만, 반대로 교양 과목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가 낮아지고 있어, 이는 대학의 교수 역량 개발(FD)에서도 다루고 싶은 테마이기도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으로서 본교의 아리무라 교수님과 저 같은 경우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을 읽는 즐거움과 졸업 연구에서 흥미진진한 주제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키워 나갈 수 있을지 의식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양성에 있어서 리버럴 아츠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라는 생각을 하며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와: 이시카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 늘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또한 히시누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대학으로 말하자면, 매년 전체 학생의 30~40% 정도일까요? 대략 80명 안팎이 사회복지사 등을 목표로 합니다. 필수 과목들을 빠짐없이 이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비교적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동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학생 자신의 인생사를 돌아봤을 때 가족에 대해 다양한 갈등을 떠안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메이지가쿠인 대학교 역시, 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고 하더라도 학문적인 배움 또한 소중히해야 한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모두 졸업 논문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실천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나 사고방식 같은 부분은 대학 교육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증 자체가,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아주 큰 이점이 주어지는 자격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어떻게 학생들의 동기를 유지하고 높여 갈 것인가가 늘 쉽지 않은 과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할 수 없는 곳도 있지만, 아동 분야에서 아동상담소를 목표로 하는 학생, 즉 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 사항은 아니며, 아동양육시설 역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구치무라: 저는 새 교육과정 논의가 끝난 후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선, 와타나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실습처를 두 곳으로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교도 새 교육과정 이전부터 180시간을 예비실습과 본실습으로 나누어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와나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 실습 시간이 늘어난 영향인지, 정신보건 복지사를 함께 취득하는 학생이 감소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사 전임 교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시카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교양 교육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 추고쿠(中国)·시코쿠(四国) 지방을 생각해 보면 대도시권과 달리 복지 업계가 취업처로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권처럼 취업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복지·의료 분야가 취업처로서의 비중이 큰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해 그곳에 취업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권에 비해 저출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다 보니, 대학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국가시험 합격률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버럴 아츠가 중요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에서는 복지 분야 취업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여겨지는 만큼, 해당 지역에 뿌리 내린 양성 기관의 경우, 국가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그를 뒷받침하는 시험 대책이 상당한 비중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고찰하고 있습니다.

제 6 회 CS-ET 살롱 보고

아사이시 유지(니혼후쿠시 대학교)



테마: 사회복지학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소셜 임팩트 실천 방법 모색

일시: 2025 년 9 월 14 일 (일) 14:00-17:00 (이후 친목회)

장소: 간사이 대학교 우메다 캠퍼스 (대면과 Zoom 하이브리드 개최)

참가자: 45 명(대면 15 명, 온라인 30 명), 친목회 12 명

“오랜만에 정말 좋은 연수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느낍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제일처럼 들으며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를 위한 동기부여도 크게 얻은 자리였습니다.

코라 아사코 선생님의 기조 강연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된 근원을 돌아보게 만드는 강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회복지학 전문가·실천가로서 웰빙 실현을 목표로 한 소셜 임팩트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중요한 사명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회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라는 조사자로서의 역할, 성과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파악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 컨설턴트로서, 교육자로서 등 다양한 연구자의 역할을 배웠습니다. 소셜 액션과 정책 형성이라는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자각하게 되어 마음이 확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동기부여가 된 저는 곧바로 코라 교수님의 대표 저서를 구입하려고 검색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려고 합니다.

화제 제공자 두 분의 말씀 또한 시사점이 풍부했습니다. 먼저 오히라 유스케 선생님이 이사장으로 계신 사회복지법인 유유(ゆうゆう)가 추진하는 ‘공유의 마을 만들기’는 제 연구 주제이기도 해서, 이번 연수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어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적자 상태에 노후화까지 진행된 특별양호노인시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았을 때, 단순히 어드바이저로 관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판단해 1년간 연구 조사를 진행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실천들이 하나둘 쌓여서 마을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홋카이도 전역과 국가 차원의 실천 사례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 자신은 아직 그만한 각오나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만큼은 외면하지 않고 책임있게 마주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확고

해 주었습니다.

NPO 법인 이사장과 교원이라는 두 역할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계신 나가노 사키 선생님의 이야기 중, 당사자에 대한 연구자의 권위성을 자각해야 한다는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외부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간 축적된 활동의 경과를 고려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파트너십이라는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위탁 가정이나 아동양호시설 등 사회적 돌봄 안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의 의미와, 그들이 정책 제언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연구자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듣고, 향후 실천에서 마주하게 될 과제가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도 화제 제공을 했습니다. 함께한 선생님들처럼 큰 임팩트를 주지는 못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자”는 메시지로, “소규모의 커뮤니티 펀드”에 착수한 실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게 정말 소셜 임팩트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발표하면서도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만,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실천과 겹쳐 생각해 보니, 제가 진행하는 “손수 만드는 작은 실천”도 틀린 방향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녁에 진행된 세션에서도 선생님들과 참석자 분들과 열띤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실천과 연구에 대한 생각 등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 역시 대화에 몰입한 나머지 시간을 잊고, 서둘러 호텔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일 참가자 들로부터는 “동경하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다” “실천과 이론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었다” “자신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과정을 쌓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등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멋진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연구지원위원회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눈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CS-NET 살롱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초기경력 연구자 연구 교류회」

연구지원 위원회 위원 시마자키 츠요시 (쿠루메 대학교)



지난 2025년 10월 4일, 일본사회복지학회 제73회 추계학술대회(도시샤 대학교)에서 연구지원 위원회 기획 「초기경력 연구자 연구 교류회」가 개최되어, 회원·비회원을 불문하고 77명(비회원 15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연구지원 위원회는 학회에 소속된 초기 경력 연구자나 학회 가입을 검토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한 기획을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획에서는 '스타트업 심포지엄'이라는 심포지엄 방식으로 초기경력 연구자이 직면한 여러 과제들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시도로서 '연구의 구상 단계'를 공유하는 형식의 초기경력 연구자 연구 교류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형식의 교류회는 초기경력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연구와 앞으로의 연구 전망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연구를 통한 새로운 교류를 창출하고, 연구 내용에 대한 조언을 받아 새로운 시각을 얻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교류회는 연구를 어떻게 전개해 가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나 실천 계획에 대한 조언을 받고 싶은 분들, 연구자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분들 등, 초기경력 연구자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당일 9시 30분 개회 후, 두 개의 부스로 나뉜 '연구 구상 발표'가 9시 35분부터 10시 50분까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 구상 발표'에서는 영 케어러 지원, 지역포괄 케어, 사회적 소수자 지원 등 현대 사회복지가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에 관한 연구 구상이 발표되었으며, 폭넓은 연구 경력을 가진 참가자들의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발표자들은 연구들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조언과 새로운 관점을 얻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10시 50분부터 진행된 전 참가자 대상 '교류회'에서는, 발표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 활발한 정보 교환과 친목의 시간이 이어졌으며, 교토의 다과와 커피를 곁들인 가운데 11시 30분 종료 시간까지 회장은 내내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로부터 이번 새로운 형식의 기획 취지에 부합하는 많은 긍정적인 소감이 전해졌으며 "학회 발표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구상 발표를 통해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소중한 의견을 듣고 연구 의욕이 더욱 높아졌다" "연구 교류를 통해 막혀 있던 부분이 해소되었다" "소속 대학원에 대학원생이 적어 고민을 나눌 동료가 부족했는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초기 경력자 분들과 연결되니 큰 힘이 되었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교류회가 초기 경력 연구자들이 안고 있는 과제 해결과 연구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기 연도 이후의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초기경력 연구자 연구 교류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초기경력 연구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회 회원 선생님들께서는 후학 양성의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지원 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초기경력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를 진행하며 사회복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翻訳: 茨城キリスト教大学生活科学部心理福祉学科 朴東民

번역: 이바라키기독교 대학교 생활과학부 심리복지학과 박동민